

# 임시정부와 국내 사이의 가교가 되다

## -이교재 생가 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선언된 독립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략을 모색했다. 특히 국내를 대상으로 한 활동은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내무부·군무부·재무부·교통부·지방선전부 등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중국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국내로 잠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1919년 말부터 1920년 초 연통제와 교통국 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연통제를 통해 국내 행정 장악을 시도하고 국내 각 주요 거점에 교통국을 설치해 통신원을 배치하였다. 교통국 통신원들은 국내 정보와 군자금 등을 모아 임시정부로 전달하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물자와 무기를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경찰의 삼엄한 감시로 많은 통신원이 붙잡혀 1922년에 이르러 그 활동과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임시정부는 19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특파원을 국내로 파견하여 국내와의 소통을 지속하였다.

특파원으로 파견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경상남도 창원 출신인 이교재이다. 그는 1919년 3.1운동 직후인 그해 6월 동지들과 경상도 일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9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과 출판법 위반 명목으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이후에도 서울에서 소규모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찰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1923년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고 국내로 잠입하여 경상남도 통영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던 중 같은 해 9월 21일 체포되었다. 이교재가 통영에서 활동한 것은 통영청년단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가들과 인척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주도한 통영 군자금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과 경남고등경찰부가 작성한 일지형식의 기록이 남아있다.

1923년 9월 21일자 경남고등경찰부는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전교원(前敎員) 이교재가 상해가정부의 밀명을 받고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조선 내로 들어와서 통영군 통영면 서정(曙町)의 김종원에게 군자금을 강요하던 중 체포되어 당국에 보내져 징역 2년에 처했다."라는 기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김종원에게 군자금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명되었다. 김종원은 통영청년단의 창단 멤버이자 부호로 강상휴, 박성숙 등과 함께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군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결국 이교재는 이 사건으로 1924년 1월 24일 또다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8년 만기 출옥 후 다시 상하이로 향한 이교재는 임시정부가 발행한 여러 문건을 지참하고 1932년 초순경 국내로 들어왔다. 총 9점의 이 문건들은 특발(特發), 추조(追吊), '상해 격발(上海激發)', 편지 등으로 위임장, 특발, 상해 격발 등에는 '大韓民國臨時政府印'이라 새겨진 국새가 찍혀있어 임시정부가 공식 발행한 문서임을 보여준다.

그중 위임장은 이교재의 입국 목적을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 13년(1931년) 11월 20일에 발행된 이 위임장에는 임시정부 내무장 조완구와 재무장 김구의 친필서명과 내무부·재무부의 관인이 각각 찍혀있다. 내용은 임시정부가 이교재를 경상남북도 상주(常駐)대표로 임명하여 '뜻 있는 자와의 연락' '독립운동 비밀 지방조직 설치' '정부에 대한 특별 헌성(獻誠) 권행(權行)= 군자금 모집'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위임장 오른쪽에는 또다른 문건이 붙어 있다. '상해 격발 건국기념일 건국대책건의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른바 '상해 격발'이다. 여기에는 이종광을 국내 및 일본의 특파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은 임시정부의 사명과 특파원의 임무가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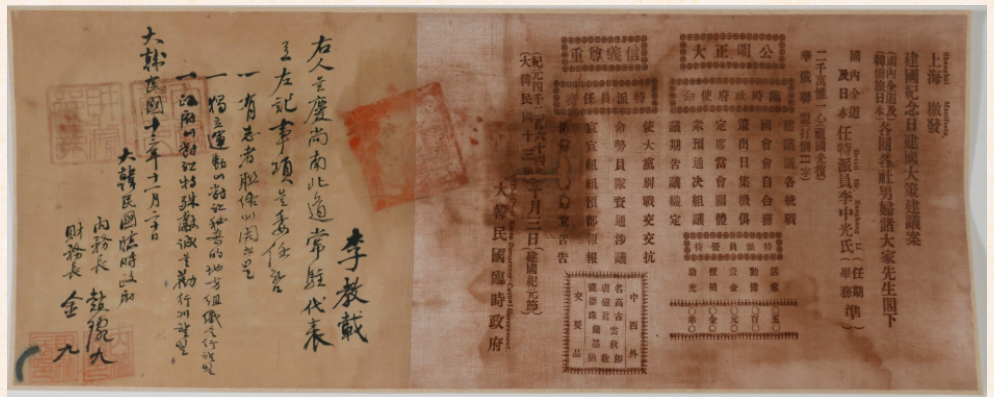
※ 임시정부 사명

건국책정중의(建國策定衆議), 의회출석예기(議會出席豫期), 의회일당통고(議會日當通告), 각자집회결의(各自集會決議), 통합기관조직(統合機關組織), 전무구체의정(戰務俱體議定)

※ 특파원의 임무

사명선전(使命宣傳), 대세선전(大勢宣傳), 당원조직(黨員組織), 별대조직(別隊組織), 전자예약(戰資豫約), 교통부립(交通部立), 교섭보고(交涉報告), 항의보고(抗議報告)

즉 일제의 만주 침략 이후 더욱 가까워진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의회, 특파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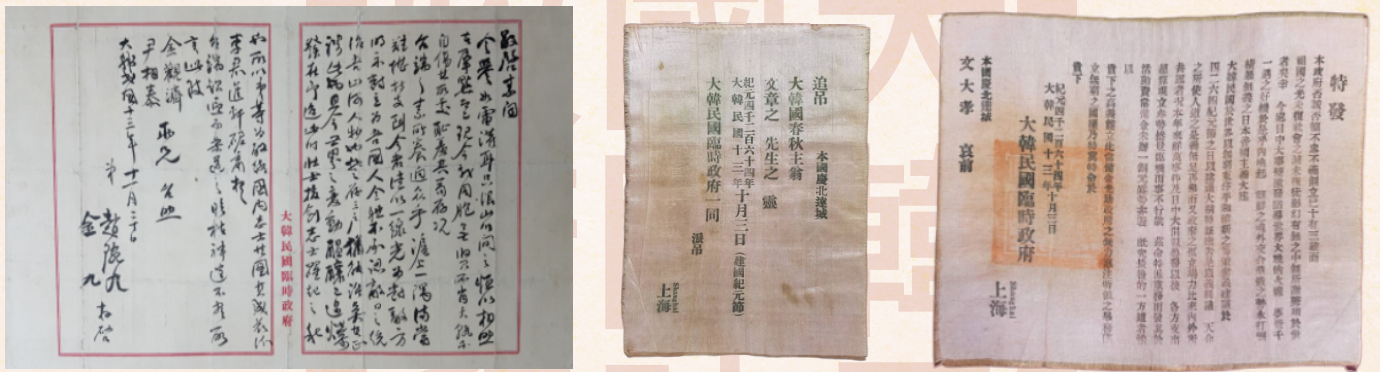
죽헌 이교재

(1887. 7. 9 ~ 1933. 2. 20)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추조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유족에게 조의를 표명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로, 이교재가 지니고 있던 추조의 수신인은 달성의 문영박(문장지)과 밀양의 황상규의 유족들이었다. 특별의 수신인은 문영박의 아들, 창녕의 성낙문, 진주의 허만정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망가로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인물 또는 그 가족이었다. 내용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세계정세가 변하고 있으니 독립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군자금 지원요청서'였다. 또한 조완구, 김구, 이시영 등이 김관제, 윤상태와 같은 국내 지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투쟁을 독려하며 독립의 당위성과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교재는 국내 임무 수행 중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모진 고문과 옥중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감옥에서 풀려난 지 10일 만인 1933년 2월 20일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독립 이후 이교재 묘소를 참배한 김구가 이교재에 대해 '독립운동의 방법과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관해 능력이 탁월하였고, 국내 주재 조직 및 독립운동 자금 모금의 경상남도 상주대표로 장관 몇 명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다고 술회한 일이 전해진다. 이교재의 활동은 임시정부가 1931년 이후에도 경상도의 독립운동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의 편지와 문장지 추조 및 문원만 특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 이교재의 생가는 경상남도 창원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가옥은 멸실 되었고, 집터는 3개의 지번으로 나뉘어 3채의 가옥이 신축되어 있다. 또한 그가 상해에서 가져온 문서들은 2020년 2월 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020년 2월 6일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창원시립마산박물관 소장)을 국가등록문화재 제774-1호,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별'을 국가등록문화재 제744-2호,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 추조, 편지 및 소봉투'(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를 국가등록문화재 제774-3호 지정하여 그 희소성과 역사성을 인정하였다.



이교재 생가 및 원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578)